

## 企業의 特許管理 基本事項(1)

### I. 特許管理에 대한 認識

企業에 있어서의 特許管理를 推進함에 있어서 먼저 基本的인 思想으로서 理解해 두고자하는 點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特許部門은 企業에 있어서 間接部門이고, 企業內에서 直接 收益에 寄與하는 部門이 아니다」라는 點이다.

즉, 이것은 「間接部門이 收益을 올리는 活動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問題提起이기도 하다.

企業의 活動이 擴大되면 分業이 始作된다. 分業은 生産·販賣·輸送·購買라고 하는 直接的으로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手段으로부터 점차 타인의 일을 補助하거나 調整하거나 하여 企業의 收益을 向上시키는 間接的 手段을 包含하여 이루어져 나간다. 間接的 手段은 收益活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本來는 不必要한 組織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企業은 그와같은 組織을 必要로 하게 된다.

間接部門인 特許部門은 間接部門이 지닌 基本的 性格上 다른 部門의 業務가 圓滿하게 遂行되어 가게 하고 혹은 他部門의 收益活動을 도와 가르므로써 오늘 또는 내일의 企業收益向上을 꾀하는 活動이 要求되고 있다. 特許의 出願, 發明의 獎勵, 技術의 賣買 또는 情報의 提供이라고 하는 特許部門의 基本的 活動은 모두 이 範疇에

包含된다. 만일 企業의 收益이 向上 제대로 되지 않을때 즉, 特許部門의 活動이 企業의 收益으로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組織을 縮少하여 再編成하거나 또는 收益이 얻어 질 수 있는 活動으로 變化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特許部門이 收益을 追求해 가고 있다는 것은 그 組織이 成立한 過程을 보면 理解될 수 있다. 特許部門이 組織되는 첫째의 例는 自然發生的으로 特許의 事務的 業務가 增加하여 組織化되는 形態이다. 즉, 間接部門으로서 不得已하여 組織이 形成되어 간다. 또 하나의 例는 特許業務를 하지 않으므로 因하여 招來되는 機會損失을 指摘하여 機會損失을 避할 目的으로 組織化하는 것이다. 後者の 變形된 例가 特許訴訟을 契機로 하여 特許部門이 組織化되는 例이다. 여기서 말하는 機會損失이란 어떤 豫防措置를 採用하지 않았기 때문에 發生하는 損害를 가르킨다. 簡單히 말하면 豫想發生損失額에 發生確率을 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特許部門에 다운 性格을 가진 間接部門으로서 는 法務部門·情報部門·審査部門등이 있다. 間接的 活動을 目的으로 하는 이들 部門의 活動은 重要하기는 하나 화려한 일은 아니다. 눈부신 活動을 할때에는 企業으로서 마이너스의 境遇가 많다. 이들의 部門에서는 화려하게 活動하지 않을 때에 評價가 認定되는 信賴있는 活動과 信賴 있는 者가 그 部門의 長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企業의 特許管理는 特許制度를 活用하여 企業의 發展을 꾀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는 點이다.

企業에 있어서의 特許管理의 實態를 보면 多種多樣하다. 現在의 特許管理에 嚴格한 意味로 正確한 定義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廣義로는 企業에 있어서 技術을 保護하여 活用하는 手段을 特許管理라고 보는 것이 適切한 것으로 생각된다. 從來부터 傳하여 내려오는 「企業이 利潤을 獲得하기 위하여 가장 適切한 效果를 가져오도록 特許制度를 利用할 것」이라는 意味를 包含하여 恒常 변모해 가고 있다.

現在, 技術을 保護하고 活用하는 手段으로서

또 産業全體에 活力을 넣어주는 手段으로서 特許制度는 가장 效果의으로 作用하고 있다. 産業의 發展을 妨礙해서 새로운 技術을 財産으로서 保護하고 活用하는 手段으로서 特許制度和 그 運用에는 몇가지 缺點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代替되는 效果의 手段은 現在의 法律下에서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 制度가 企業活動에 有益하다면 活用을 妨礙하여 하는 것이다.

또 한편, 企業은 恒常 時代에 맞는 形態로 變化해 간다. 즉, 進化가 追求되고 있다. 進化의 形態를 잘못 잡거나 또는 進化를 怠慢히 하거나 하여 새로운 時代에의 對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企業의 滅亡밖에 없는 것이다. 企業人에게는 그들 서로서로의 立場이 달라도 日常의 業務를 通하여 合理性和 先見性이 要求되고 있다. 거기에 企業經營戰略의 一環으로서 特許管理가 要求된다. 企業이 가지는 經營政策이 特許制度를 活用하는 特許管理에 어떻게 作用하느냐를 다음의 말이 象徴의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研究開發活動에 의하여 進歩를 노리는 企業經營者는 그 가장 重要한 責任속에 特許管理를 追加할 義務가 있다. 아무리 좋은 研究프로젝트도 良好한 特許管理에 의하여 國內外에 特許保護가 確立되고 나아가 潛在의 産業海賊을 屈伏시킬 때까지는 成功하고 完了했다고는 할 수 없다. 成長하는 會社의 技術的 노우하우와 特許權은 會社의 가장 重要한 資産이므로 經營者는 이것을 適切하게 管理하여 自己防衛와 企業競爭의 道具로서 活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企業에 있어서 技術을 保護하고 活用하는 手段인 特許管理가 企業經營 戰略의 一環으로서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 있는 것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둘째의 點으로부터 導出된다. 企業의 特許管理는 特許制度의 活用만으로 固執해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여기서는 不正競爭防止法등 特許制度에 의하지 않는 特許管理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企業의 將來의 發展에 特許部門이 關係되어 있는 것이다.

企業의 發展은 創造的 活動에 依存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企業의 進化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느 企業의 會社定款 第6項에는 “6. 前各號에 關한 發明研究 및 그 利用”이라고 되어 있다. 會社經營의 憲法인 定款은 企業의 現在의 業務 및 將來의 展開할 業務를 나타내고 있다. 이 定款을 읽을 때 發明者로서 新技術, 新製品의 開發에 心血을 기울이는 創業主의 心情이 잘 나타나 있으나 그 以上으로 企業의 發展에는 創造活動이 不可缺함을 創業主가 痛感하고 確信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企業에서는 이 創造活動의 重要性을 다른 形態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社訓이나 社則의 안에서 볼 수 있다. 몇몇 會社의 社訓을 보면「事業의 發展」, 「社會에의 貢獻」이나 「社員의 和合과 人格形成」에 追加하여 「創造的 活動」을 主唱하고 있다. 이 重要한 創造的 活動을 企業속에서 支援할 수 있는 組織이 特許部門이고 또 거기에 適合한 組織이다. 創造的 活動의 支援은 이제 特許制度를 活用하는 때두리박의 일이다. 特許制度를 넘어선 樣相이 있다. 이것이 바로 進歩的인 特許管理가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에 더하여 企業속에서 一部 研究者만이 發明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職場의 從業員이 모두 發明을 追求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進歩的 特許管理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體制로부터 企業全體의 活力이 생겨나는 것이다. 發明의 創出에 대한 支援, 獎勵라고 하는 것이 特許部門에 주어진 重要한 業務로 생각된다.

特許部門이 企業發展에 必要한 情報를 經營者에게 提供하거나 情報의 分析을 하는 것, 또는 研究開發에 있어서 開發課題決定에의 支援으로부터 開發計劃에의 協力, 나아가서는 開發成果의 活用段階까지도 協力하는 것들은 이미 古典的인 特許業務의 때두리박의 일이다. 거기에는 새로운 經營戰略의 一環으로서의 特許活動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特許業務를 通하여 企業의 技術實態를 把握할 수 있는 點이다. 特許部門을 技術의 經理部門이라고 하는 것은 이 點에 있는 것이다.

會社全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企業活動의 實態는 經理部門에 金錢的 結果로서 集計된다. 經

理部門을 통하여 企業의 經濟的 實態가 把握되고 企業收支를 맞추기 위한 對策과 將來計劃이 세워지게 된다. 經理部門은 單純히 金錢의 收入, 出金만을 取扱하는 것이 아니다. 金錢의 入出을 分析하므로써 企業이 가지고 있는 弱點, 長點을 把握하여 弱點을 修正補強한다. 여기에 대하여 特許部門은 企業에서의 創造에 關係되고 더구나 技術의 保護나 活用을 통하여 企業에 있어서 技術의 實態를 가장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立場에 있다. 企業活動에 있어서 自社の 技術의 質을 알 수 있게 되고 開發의 進展을 알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技術發展을 豫測, 解析할 수도 있게 된다. 自社の 技術과 他社の 技術의 現狀과 將來를 解析하여 比較할 수 있다. 技術의 發展方向을 示唆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解析比較는 特許部門의 가장 自信있는 領域이다. 特許部門을 技術의 經理部門이라고도 말하는 所以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國際化時代에의 對應이다.

世界的 規模의 움직임속에서 技術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點과도 또 重複되는 內容이기도 하지만 國際化時代와 外國特許管理에 대하여는 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以上 말한 것이 企業에서 特許管理를 해 나가기 위한 基本的 認識이고 企業이 特許管理를 推進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 II. 經營方針과 對處해야 할 問題點

特許管理가 企業經營을 떠맡치는 한 手段으로서 機能하는 以上 그것은 企業經營의 方針과 無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最高經營者의 經營政策의 一環으로서 特許管理에 關한 基本政策이 세워지고, 그것이 實施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問題이다.

企業에 있어서 經營者가 專門의 業務의 末端까지 理解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經營者는 그 組織이 어떻게 機能하고 如何히 企業利益에 貢獻하고 將來의 發展에 寄與하는가를 理解하는

것이다. 組織은 그와같은 理解下에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特許部門이 具體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經營者로부터 指示받는 일은 적다. 大部分은 一般的 指示에 그친다. 特許部門의 長은 一般的 指示를 經營政策의 一環으로서 消化하고 具體化해 간다.

오늘날의 經營者는 特許發明, 나아가서는 特許管理의 重要性을 認識해야 한다. 이것을 經營政策의 한 기등으로 삼아 自社發展에 活用하려고 努力해야 한다. 따라서 特許部門의 活動도 特許에 關係있는 活動이 企業經營으로서 如何히 重要한가를 具體的으로 實現해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의 여러가지 點을 對處해야 할 問題點으로서 들 수 있다.

(1) 企業의 利潤獲得에 보다 더 效果的으로 特許制度를 活用하는 管理體制 또는 管理方式를 各 企業規模, 企業의 活動態樣·性格에 맞추어서 確立할 것.

(2) 研究開發目標設定과 그 實現化(企業化를 包含)에 있어서 側面的 助言으로서가 아니고 發明의 눈(萌芽)을 찾아내고 研究開發方向이나 企業化의 指針設定에 錯誤가 생기지 않도록 協力支援해 갈 것.

(3) 從業員 全體의 創意성과 積極性을 育成하고, 또한 이것이 發揮될 수 있는 體制의 確立과 運用을 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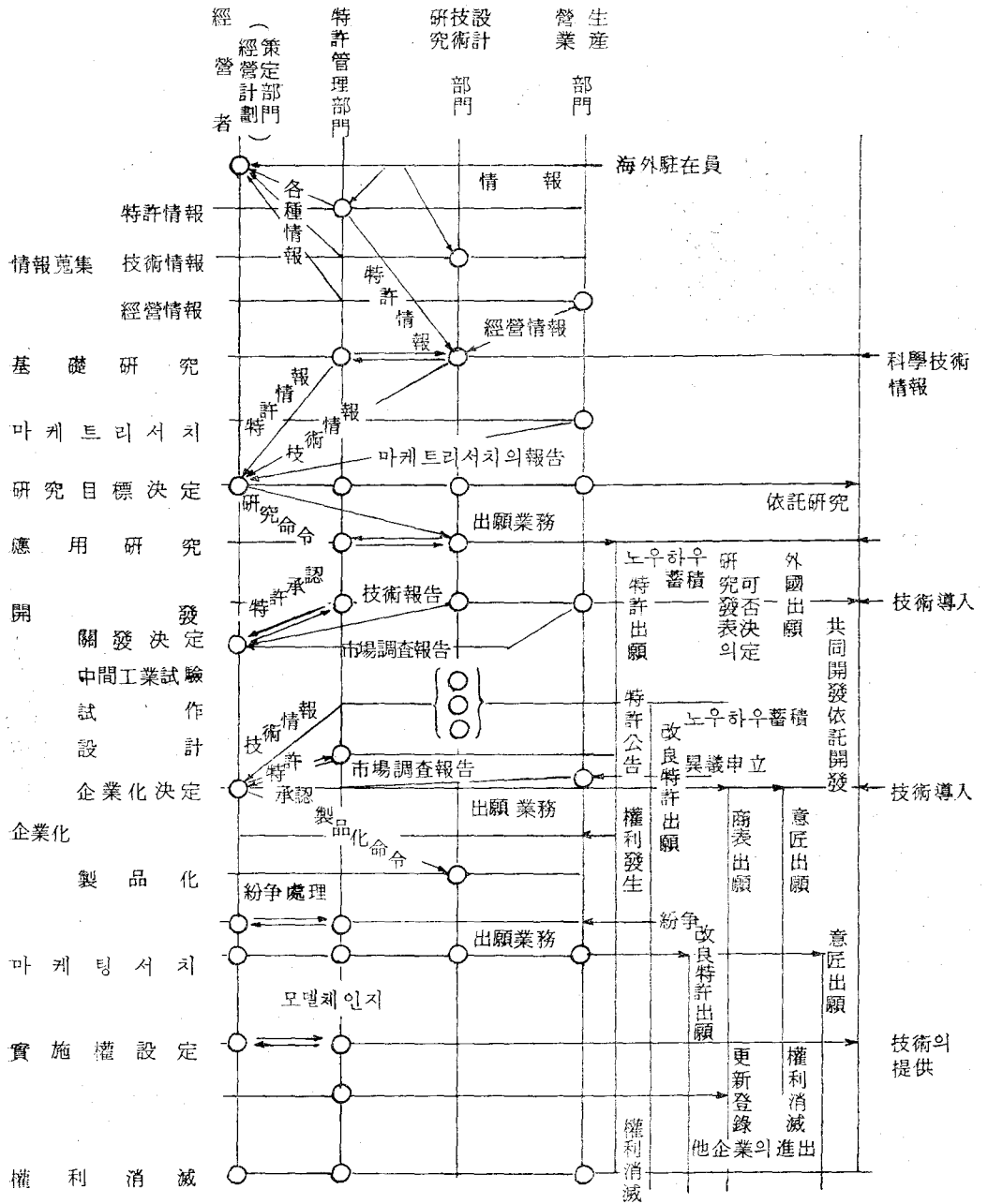
(4) 技術의 無體財産의 保全과 效果的인 積極的 活用을 꾀할 것. 特히 企業內技術의 供與와 企業外技術의 導入에 의한 收益의 向上에 協力할 것.

(5) 國際的 技術交流(企業進出, 技術輸出), 國際技術競爭力의 強化와 國際信用의 獲得維持를 위한 誘因이 될 것.

(6) 企業發展에 도움이 되는 情報體制의 確立·活用을 꾀하고 研究開發方向이나 企業化의 指針設定에 錯誤가 생기지 않도록 萬全을 期할 것.

(7) 企業外의 시스템으로서 協業企業相互間의 共同技術開發, 共同技術管理에의 對應 또는 特許廳, 關連되는 여러 機關, 辦理士의 高度知識 利用을 꾀할 것.

(圖表) 特許管理 系統圖



(8) 特許管理를 통하여 自社の 技術開發力, 技術開發方向의 實態를 把握하여 技術進步의 向上이나 技術的 方向의 修正에 寄與할 것.

以上の 여러가지 點으로부터 具體的인 計劃이 情勢에 適應되고 彈力的으로 取捨選擇・相互補

完되어 가면서 展開된다.

위의 圖表는 特許廳編「明日을 여는 特許」로부터 一部修正하여 轉載한 것이다. 이 圖表는 特許管理部門이 다른 部門과 어떻게 關聯되어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계속>